

# 동·서·남·북구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

## 매니페스토 주관 공약 평가

### 4개구 최우수·광산구 우수

광주 5개 기초자치단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4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2일 광주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0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약이행완료(100점) △2023년 목표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공약 일치도(Pass/Fail) 등 5개 분야로 나눠 선거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남구는 공약이행과 주민소통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6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선 8기 공약 64개 가운데 핵심

공약을 포함한 36개 사업을 이행 완료하면서 매니페스토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마무리를 지은 대표 공약사업으로는 '새로운 백운광장과 함께, 광주 핫 플레이스 남구' 분야의 미디어월과 푸른길 브릿지 건립을 비롯해 '생활SOC와 함께 삶의 질 높은 남구'를 만들기 위한 효천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동구는 5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았다.

총점 83점 이상을 받아 SA등급으로 분류된 동구는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실현을 위해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등 6대 분야 48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구 역시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았다.

서구는 주민배심위원단을 통해 공정하게 공약이행평가를 진행하고 공약 관련 조례 개정,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매니페스토 공약 등을 마련해 공약 사업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공약이행의 민



광주 남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4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이행과 주민소통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6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남구의 핵심 공약 사업인 백운광장 일대의 푸른길 브릿지.

나건호 기자

주성을 확보한 바 있다.

북구는 공약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배심위원단을 구성해 공약 실천 과정에 주민 참여를 폭넓게 보장했다.

광산구는 A등급을 받았다. 민선 8기 박병규 광산구청장 공약은 4대 분야 40개, 2022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종합 이행률은 61.2%다.

송민섭 기자 minsu.song@nilbo.com



## 5·18민주화 운동 기념 참배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9일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참배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의회는 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광주항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묘역을 둘러보는 등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구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북구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민주의 문 방명록에 '5·18 영혼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북구의회는 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고 적었다.

정성현 기자



## 도심 컨테이너형 전시관 조성 북구, 실외 야간 특화...총 3곳

광주 북구는 지난 9일 도심 속 컨테이너형 팝업전시관 '편편한 아트박스'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편편한 아트박스는 광장, 공원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마련한 예술작품 전시 공간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작품을 접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고자 지난 2월 신용빛고을근린공원과 중흥근린공원, 반다비체육센터 등 3곳에 조성했다.

컨테이너 크기는 가로 6m, 세로 3m, 높이 4m다. 정면과 우측면을 유리로 만들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설계했다. 직사광선에 의한 작품 훼손 방지를 위해 주간에는 전동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내부 조명을 밝혀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이달 아트박스에서 안태영과 윤종호, 최정미 작가 3명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오는 10월까지 아트박스를 활용해 청년예술인 등 지역 작가전을 4회 운영할 계획이다. 11월과 12월에는 사진 공모를 통해 접수된 주민작품을 전시하고, 전시작과 연계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연 3회 운영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호남 최초 도심맨발축제 성료 서구, 주민 2천여명 운집

광주 서구는 지난 11일 금당산 맨발로(路) 일대에서 '함께서구 맨발로서구'를 주제로 호남권 최초 도심맨발축제를 개최했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금당산 1~2구간을 비롯해 서구 18개 전체동에 '내곁에 맨발로'를 조성한 것을 기념하고 주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축제 참가자들은 맨발걷기를 비롯해 황토체험, 권택한 대한민국민학교 교장의 미니강좌와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 즉문즉답, 힐링음악회, 차매예방 인지기화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축제주제곡 '맨발의정춘'에 맞춰 건강체조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김주비 기자

## '천원 식당' 개소

### 광산구, 65세 이상 노인 등

광주 광산구는 지난 10일 1000원만 받고 취약계층에 밥을 제공하는 '천원 한끼 식당' 1호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문을 연 천원 한끼 식당 1호점은 CN드메르웨딩홀 등의 후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한다.

광산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자 천원 한끼 식당 운영에 나섰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40세 이상 복지 대상 1인 가구는 1000원에 콩나물국밥을 먹을 수 있다.

지역 상권과 상생하고자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만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다.

판매수량도 하루 100그릇으로 한정한다.

김상철 기자



지난 11일 광주 서구 동천동은 동천리버펠리스 중앙광장에서 '오월의 봄날, 우리 광장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아파트 총회를 개최했다.

광주 서구 제공

## 서구, 주민 참여형 마을 행사로 '복직'

### 상생, 인문 등 동별 특색 반영

광주 서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주민참여형 마을 행사를 진행했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상생마을'을 내세우는 금호1동은 지난 11일 품고어린이공원에서 금부·금호·상무·만호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마을활동가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마을 We로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 동아리 장기자랑과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및 먹거리 부스로 이뤄졌다.

금호1동은 올해 처음으로 관내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참여하는 학생총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선정한 마을의제를 오는 9월 주민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문마을' 금호2동은 같은 날 마재근

린공원에서 지난해 주민총회 마을의제 실현을 위한 어린이 축제 '초록빛 어린이 세상'을 진행했다.

서구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인문마을의 특색에 맞춰 '내가 바라는 우리 마을의 모습'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더불어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 공연, 체험, 먹거리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마련해 참여한 어린이들의 호응을 받았다.

'책마을' 동천동은 동천리버펠리스 중앙광장에서 '오월의 봄날, 우리 광장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아파트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주민자치회, 아파트협의회, 각 자생단체 및 마을공동체들이 뜻을 모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의제 발굴 과정부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힐링 쉽,터 건강마을' 풍암동은 풍암중학교 운동장에서 이웃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마을 체험 활동인 '제1회 풍암동 아파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주민자치회 아파트도시농업분과 안건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풍암동 마을 특색에 따라 아파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네발 달리기, 물풍선 받아라, 신발 던지기 등 유쾌한 경기가 이어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선 8기 서구의 마을 행사는 각 동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주민들이 새롭게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며 "평소 마을 활동에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스스로 찾아올 만큼 의미 있고 즐거운 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주비 기자